ACE ETF | 한국투자 신탁운용

시장이 흔들릴수록 강해지는 자산배분의 힘

변동성관리와 자산배분

2026.07

초심자 & 공격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ETF는?

-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는 **한 번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적합
- 주식 비중이 높은 **공격형**은 하락장에 **변동성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상품이 적합

투자는 처음 해보는데,
뭐부터 사야 하지...
초심자 A씨
하락장을 못 버티겠어!
팔아버릴까?
공격형 B씨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ACE ETF | 한국투자 신탁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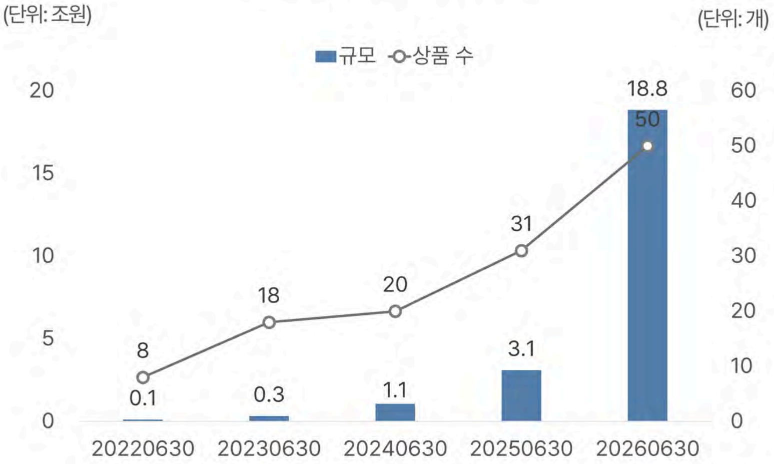
① 복잡한 자산배분을 간편하게!

ACE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

급성장한 채권혼합형 ETF 규모

- 2022년 6월말 **약 1,200억 → **2026년 6월말 **약 18조 8천억**
-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혼합형 ETF 시장**은 **폭발적 성장**

< 채권혼합형 ETF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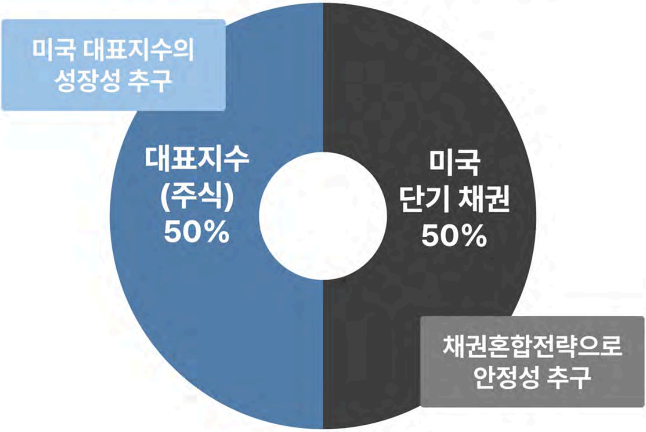


· 자료: KRX, 2026년 7월 20일 기준

주식 비중 50% : 채권 비중 50%

- 한 번의 투자로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 관리할 필요도 없이 **한 상품에 두 자산**을 모두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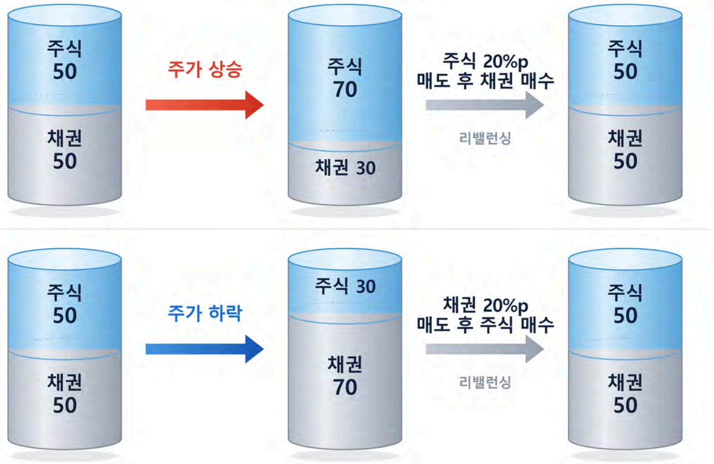
< ACE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복잡한 자산배분, 한 종목에 담다!

- 사고, 나누고, 비중 조절하고... 복잡한 리밸런싱 필요 없이
- ETF 내에서 **매일매일 자동으로 리밸런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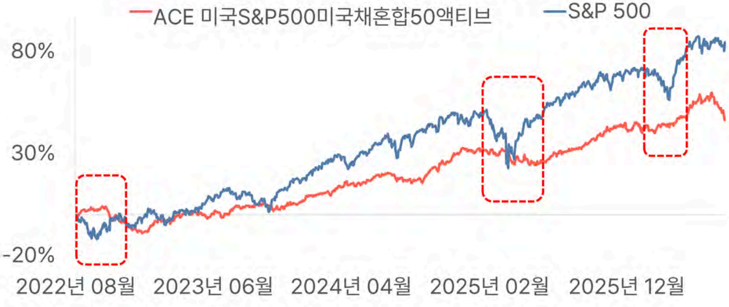
< 매일매일 리밸런싱>



성장은 S&P500, 방어는 미국 국채가 담당

- **성장**은, 전 세계가 신뢰하는 지수인 **S&P500**에 담고
- **방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안정적 자산인 **미국 국채**에 담다

< S&P500과 유사한 흐름, 하락장에서 안정적 >



· 기준일: 2022년 8월 26일 ~ 2026년 7월 31일 · 출처: Bloomberg, 한국투자신탁운용

펀드	1M	3M	6M	1Y	3Y	상장이후
ACE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7.76	-1.23	3.52	12.01	45.89	46.61
BM	-7.95	-1.49	3.23	13.40	53.75	57.16

- 자료 : 한국투자신탁운용, 2026.07.31 기준, 상장일 : 2022년 8월 26일, 세전 수익률 기준, 순자산총액 : 12,109억,
단위: %, 채권혼합형, 기초지수 : S&P500 and Short-Term Treasury 50/50 Blend Index(원화환산)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CE ETF | 한국투자 신탁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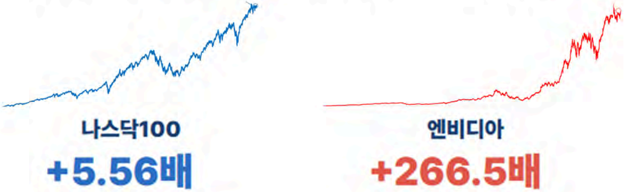
② 하락장에서 버틸 힘을 주는

ACE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

높은 수익도 못 버티면 소용 없다!

- 엔비디아는 10년간 266배가 올랐지만, -30% 이상 **폭락이 4번**
- 대부분의 투자자는 낙폭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결정

< 10년간 266배 오른 엔비디아, -30% 이상 폭락 4번 >



구간별 MDD (2016~2026)	NASDAQ100	NVDA
-30%대	1회	**2회**
-40%대	0회	0회
-50%대	0회	**1회**
-60%대	0회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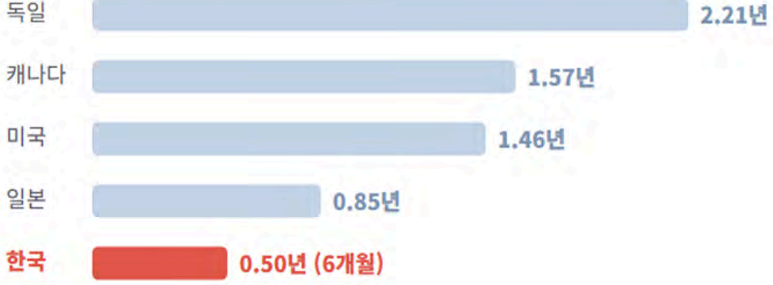
· 자료: Bloomberg, 2016-02-01~2026-01-31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평균 6개월만에 매도

- 한국 투자자는 낙폭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파는 경향
-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낮은 변동성**이 **필수적**

< 국가별 주식투자 평균 보유기간 (2010~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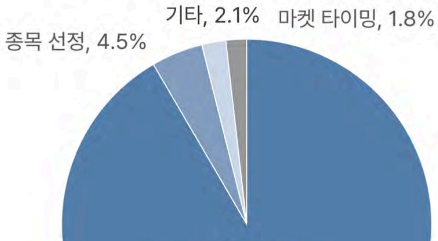


· 자료: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WFE),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답은 나눠 담기! 변동성 줄이는 검증된 방법

- 성격이 다른 자산군을 나눠 담으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음
- 특히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정적 자산인 채권을 **나눠 담는 전략** 유효

< 포트폴리오의 성과 결정 요인 >



자산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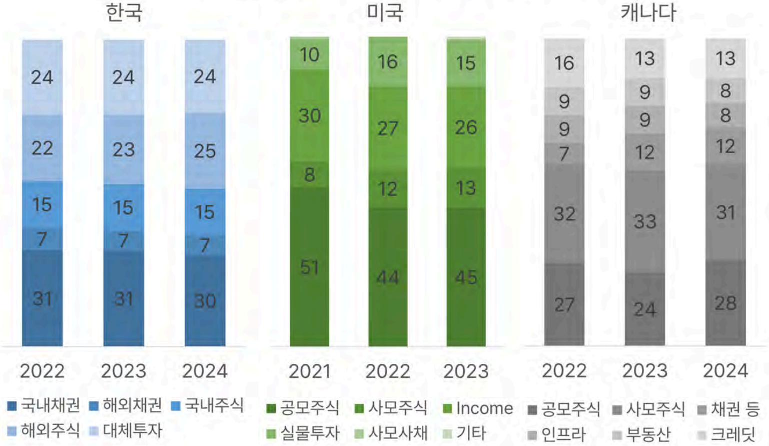
91.5%

· 자료 : 게리 브린슨(1986),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결정하는 요소>

세계 주요 연기금도 이렇게 나눠 담는다!

- 전 세계 유명 연기금도 주식, 채권 등에 폭넓게 분산 투자 중
- 전문가들의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변동성 관리** 가능

< 국내외 주요 연기금의 자산 배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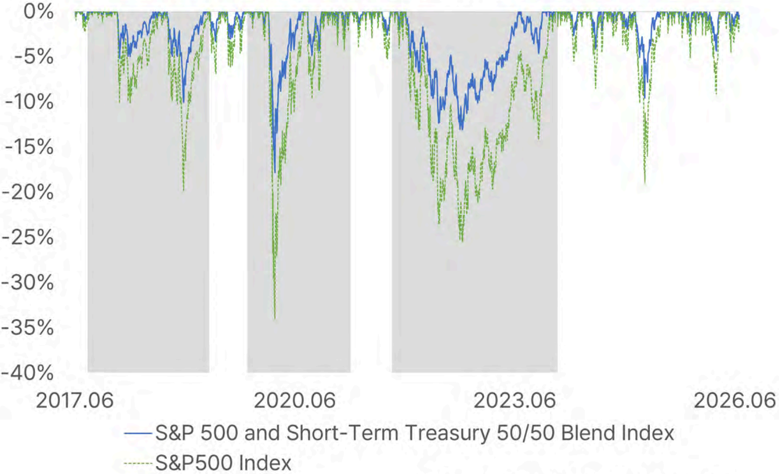


· 자료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미국(CalPERS), 캐나다(CPPI),현대차증권, 2024.07.03

손실을 줄이면, 더 빠른 회복 가능

- 손실을 줄이는 것이 곧 수익을 지키는 지름길
- **하락장에서 얼마나 덜 잃느냐**가 장기 수익률을 판가름

< 미국 대표지수와 대표지수 채권혼합형 MDD>



· 자료: Bloomberg, 2017-06-30~2026-0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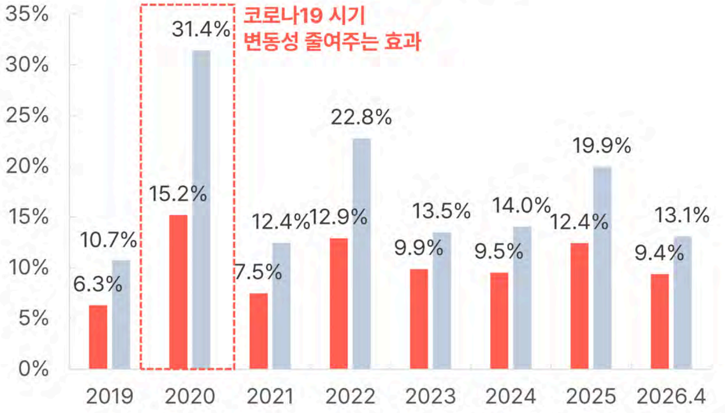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수 지수보다 낮은 변동성으로 우상향 추구

- 상승 가능성을 추구하며 채권 혼합으로 변동성 완화를 함께 고려
- 변동성이 낮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어 **높은 장기 수익률 추구 가능**

< S&P500 50% + 미국채 50%, 지수보다 낮은 변동성 >

🟥 S&P500 50/50 채권혼합 ▨ S&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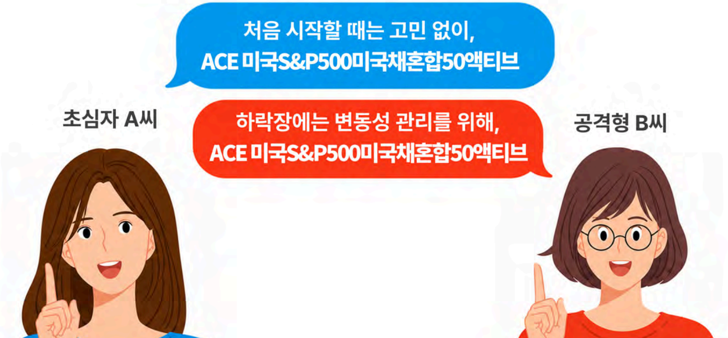


· 기준일: 2026년 04월 17일, · 출처: Bloomberg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심자 & 공격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ETF!

- ① 초심자: 한 종목으로 편리하게 **자산배분** 시작!
- ② 공격형 : 성장 추구와 **변동성 관리**를 한 번에!


처음 시작할 때는 고민 없이,
ACE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초심자 A씨
하락장에는 변동성 관리를 위해,
ACE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공격형 B씨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ACE ETF | 한국투자 신탁운용

① 초심자: 한 종목으로 편리하게 자산배분 시작!

② 공격형 : 성장 추구와 변동성 관리를 한 번에!

ACE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

상품 개요

구분	ACE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종목코드	438080
최초상장일	2022.08.26
기초지수	S&P500 and Short-Term Treasury 50/50 Blend Index(원화환산)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순자산총액	1조 2,109억원 (2026년 7월 31일 기준)
합성 총보수	연 0.2283% (운용 : 0.12%, AP/LP : 0.01%, 신탁 : 0.01%, 일반사무 : 0.01%, 기타 : 0.0783%)

*직전 회계 기간(2025.01.01~2025.12.31) 기준 증권거래비용 0.0325%

리스크 관리 및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해외시장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해외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자산의 환율에 대한 환헤지 거래를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USD)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통화가 원화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	경제 상황이나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의 여건 또는 해당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종목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은 투자신탁의 주요 위험을 발췌한 것이며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및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액티브상장지수펀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비교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비교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비교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비교지수와 다른 자산 또는 다른 비교지수를 사용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정 비율 투자, 환율변동(해외투자시), 운용/판매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또한,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 가도록 운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다른 일반 ETF보다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용의 실패에 따른 것이 아님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특정국가(미국)의 주식 및 달러표시 채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해외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 투자위험은 투자신탁의 주요 위험을 발췌한 것이며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CE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 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개별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 개별종목 및 주식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3868호 (2026-08-13 ~ 2027-08-12)